“옥에 있는 영들” 말씀에 대한 해석과 연구

홍성혁 백석대 교수

요약

베드로전서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간 어디에 가셨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인지, 또는 노아시대에 방주에 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의 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해석을 복음 전파로 본다면 타락한 천사보다는 노아시대에 방주에 타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영으로 보여지지만, 한번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고, 만약에 두 번째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시대에 방주에 타지 않고 죽은 영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선포하셨다는 말씀을 승리에 대한 선언으로 본다면,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을 기회를 두 번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6:5). 이 말씀과 동일하게 사형수의 감방에 해당하는 옥에 있는 영들을 향해 승리를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베드로전서, 지옥강하, 사흘 동안의 죽음, 그리스도의 승천, 옥에 갇힌 영들, 그리스도의 선포

I. 서론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베드로전서 3:19)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본문이고 이 본문을 연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놀라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느 것보다도 모호한 말씀이다.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의 의미를 논의하는 한 연구 논문인 Michael J. Svigel의 "The Identity of the Spirits in Prison in Peter 3:19–20"에서는 타락한 천사 또는 죽은 자의 영혼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포함하여 "옥에 있는 영"이라는 문구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을 제시한다(김명일. ,2019:23).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해석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Svigel(Svigel, M. J.,

2012).에 따르면, 베드로전서의 문맥은 저자가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후 홍수로 멸망된 특정 그룹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죄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은유적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Svigel(Svigel, M. J., 2012)은 또한 이 해석이 노아와 방주를 언급하고 세례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한다. 전반적으로 그는 감옥에 있는 영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지금은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지만, 한번 죽으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1. 옥에 있는 영들과 미혹하는 영들의 차이

베드로전서 3:19의 해석과 "옥에 있는 영들"의 해석은 학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다를 수 있으며, 이 구절에 대해 보편적으로 동의된 이해가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 해석은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데, 이 견해에 따르면, 이 타락한 천사들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어떤 식으로든 투옥되거나 감금되었으나 이 해석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견해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간을 속이고 있는 악령에 대해 일부 신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나 악령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조종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베드로전서 3:19에 언급된 영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옥되지 않고 세상에서 인간을 미혹하며 마지막 심판 때까지 투옥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경 전체에서 "속이는 영" 또는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용어는 속이는 데 관여하여 사람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거짓을 조장하는 악하거나 악마적인 존재를 묘사하는 데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영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훼손하고 인류를 속이려는 사탄의 대리인 또는 악의 세력으로 묘사되며,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러한 영들을 쫓아내는 다양한 성경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심지어 소유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옥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갇혀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 악한 영들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악한 곳에 쓰임을 받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II. 본론

1. 천국과 낙원

성경에서 "천국"과 "낙원"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천국과 낙원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이해는 다음과 같다.

천국: 기독교 신학에서 천국은 일반적으로 하나님, 천사, 의인의 영혼이 거하는 곳을 가리킨다. 그것은 신성한 영광의 영역이자 죽음 이후 신자들의 영원한 거처로 여겨진다. 또한, 천국은 종종 신자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고 영원한 기쁨과 예배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장소로 묘사된다.

낙원: "낙원"이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지복과 행복의 장소를 묘사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그것은 종종 창조의 갱신과 고통과 죄의 부재를 상징하는 회복된 에덴의 개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어떤 경우에는 낙원이 부활과 최종 심판 전에 의인의 거처로 구체적으로 언급되며, 그곳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을 기다리는 안식과 축복의 장소이기도 하다.

천국과 낙원이라는 용어는 유사점을 공유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특정 뉘앙스와 문맥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신자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이든 낙원이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영생을 경험하는 것임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세상의 고통과 죄로 인한 죽음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 안식을 누리는 때가 출애굽 때 찾아 볼 수 있다. 출애굽 당시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안식을 누리는 곳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안식을 누린다는 약속으로 가나안을 허락하신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히브리서 4:3).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 오른편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에서 낙원을 언급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셨고, 그 낙원은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으로 여겨진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살펴보면, 나사로와 부자가 각각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했다고 나온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과 부자가 있는 곳은 구렁텅이가 놓여 있고, 건너갈 수 없다고 하지만 대화는 가능할 정도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부자가 있는 이곳은 요한계시록 21:8절에서 언급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심판 이후에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분리되어 서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브라함과 대화하던 부자가 있었던 곳은 서로 대화가 가능한 위치로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영원한 지옥으로 보이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심판이후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인다면, 과연 그들이 마음편이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곳과 부자가 있는 던 불꽃 가운데 장소는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 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3일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노아 홍수시대에 방주에 타지 못하여 죽었던 사람들과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 죽은 1세대 히브리인들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언급된 "옥에 있는 영들"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인 악한 영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2. 요나의 표적에서 암시하는 것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태복음 12:39)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과 부활과 관련하여 "요나의 표적"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는 큰 물고기에게 삼켜져 3일 동안 그 안에서 지내다가 산 채로 뱉어지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이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그에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마태복음 16:4)고 말씀하신 뜻은 예수께서는 자신도 부활하기 전에 무덤에서 사흘을 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즉,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다고 볼 수 있다. 이 비유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와 사명의 중심 초점으로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그의 부활의 기적이 그의 권위와 신성의 궁극적인 표징이 될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29절에서처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말씀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갇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고, 마태복음 12: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요한복음 20:17)과 같이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전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람의 터치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는 세상의 그 어떤 형태의 부정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3. 제사의 의미

구약에서 희생의 개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 관습과 믿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사란 하나님께 귀한 것을 예배와 순종과 죄에 대한 속죄의 행위로 드리는 행위를 말하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났으며 대표적인 율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구약에서 희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이었다. 죄에 대해서는 사망으로 그 죗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죄를 감당시키지 않으시고, 구약시대에는 짐승이나 다른 곡물로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와 회개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여겨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구약성경에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제사가 규정되어 있는데, 희생의 주요 범주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포함된다.

번제물: 번제물은 제단에서 동물을 완전히 태워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였다. 제물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굴복과 헌신을 나타낸다. 그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들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열망을 상징했다고 볼 수 있다.

곡식 제물: 곡식 제물은 밀, 보리 또는 밀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섞은 것과 같은 다양한 곡식 제품으로 구성되며, 번제와 달리 소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감사와 인정의 표현으로 드려졌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신하는 행위로 여겨졌다.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와 교제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표현하는 자발적인 제사였다. 그들은 종종 숭배자가 부분적으로 먹고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공동 식사로 나누는 동물 제물을 포함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의 평화와 조화를 의미한다.

속죄제: 속죄제는 의도하지 않은 죄나 의식상의 불결함을 용서하기 위해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희생이었다. 그들은 제단에 피를 뿌린 황소나 염소와 같은 동물을 바치는 일과 관련이 있다. 속죄 제물은 인간의 나약함을 인식하고 용서의 필요성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려는 열망을 보여 주었다.

속건제: 속건제는 사람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배상해야 할 때 요구된다. 그 제물에는 숫양이나 그 밖의 특정한 동물이 관련되어 있었으며 범한 잘못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었다. 그것은 죄의 인정, 화해의 열망, 상실되거나 손상된 것의 회복을 나타낸다.

구약의 희생 행위는 흠 없는 적합한 동물의 선택, 피 흘림,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요소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죄의 심각성, 속죄의 필요성, 자신의 소유물과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의 중요성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약의 희생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궁극적인 희생의 예표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은 인류를 위한 용서와 구원을 제공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희생으로 이해되어 구약의 희생 제도는 완전히 죄를 사하여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율법행위인 제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낙원처럼 임시로 거하는 곳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이다.

위의 주제와 연결되어 구약시대에 예수님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사를 통하여 죄를 덮은 사람들은 죽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즉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거하는 곳에 있었던 것으로 봐서, 구약의 제사를 통한 속죄는 죄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일시적으로 덮이는 것으로 여겨지며,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비로소 죄가 완전히 씻기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대속 사건과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인간의 죄가 완전히 씻기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시적으로 멈추게 하는 것이 제사 행위로 보인다(히브리서 10:11).

4. 제사장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의 제사

제사장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대속의 제사는 완전히 구별되며 신학적 의미도 다르다.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장들의 제사는 율법의 대표적인 대속의 행위로 여겨진다. 이러한 대속은 일반적으로 동물, 음식 또는 기타 항목을 헌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바쳐 은혜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희생의 목적은 종종 죄를 속죄하거나 예배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율법행위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교리이며, 기독교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에베소서 2:15). 그의 십자가 사망과 그에 따른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중추적인 사건으로 간주되어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구원과 화해를 제공하였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행한 수많은 제사와 달리 예수의 희생은 독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제공함으로써 희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하면, 제사장의 제사는 구약시대에 중요한 율법행위이지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희생은 기독교 신앙에서 뚜렷하고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인류 구원을 위한 궁극적인 희생으로 작용한다.

5. 단번에 드리는 예수님의 제사

히브리서 10:11,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에서와 같이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히브리서 10:1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에 의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제사를 지속해서 드리기 위해 서서 있는 대제사장과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해 속죄하시고, 앉으시는 예수님을 대조함으로 예수님의 대속사건은 영원한 제사로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예가 부잣집 앞에서 기숙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고,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있으며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대화하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낙원으로 추정이 되고, 부자가 있는 곳은 마지막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을 당하여 불의 못으로 떨어지는 그 불의 못이 아니며, 이곳도 불의 못에 들어가기 전의 임시로 있는 곳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 사함의 능력이 있고, 짐승의 피는 잠시 하나님의 진로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 멈추게 하는 효과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가 완전히 씻기어 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임 당하지 않으셔도 된다.

III. 결론

따라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구원을 기회를 두 번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요 16:5). 이 말씀과 동일하게 사형수의 감방에 해당하는 옥에 있는 영들을 향해 승리를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한번 죽으면 복음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9:27에 기록되어 있다. 만약에 죽은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하던 부자가 믿지 않을 리가 없다. (누가복음 16:28)에 보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어 내 형제 다석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 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보아, 부자는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정확한 이유를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곳에 오지 않고,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가는지 아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면, 지금 불꽃 가운데서 고민 중인 부자와 같은 영들이 믿지 않을 이유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기회는 살아 있는 동안 주어지는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만약 죽음 이후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주장한다면 인간의 자유 의지가 무력화될 것이고, 믿음이 가치가 없어지며, 중세시대 면죄부와 다를 바가 없는 이단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태복음 12장 31~32절에 기록된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일평생 사는 동안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여 죽어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다.

옥에 있는 이 영들의 특정한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 성경이 자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어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옥"이라는 용어와 성경의 스올 또는 감옥에 있는 영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스올은 죽은 자의 영역이나 무덤을 말하지만, 감옥에 있는 영의 개념은 노아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관련하여 언급된다(이환진, 2003: 61; 김동수, 2011; 김균진, 2000). 결론은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일 가능성이 크고,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신의 구속사역이 성공하여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을 영원히 분리하는 것에 대한 선포로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옥에 있는 영들이 타락한 천사인지, 노아 시대에 방주에 타지 못해서 죽은 사람인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을 평생토록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믿는다. 구원을 받은 감격이 일평생 지속되면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겠지만 믿음의 선진들도 시련을 받고 믿음이 약해져서 힘들어하는 것을 자주 보면서 섰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받은 구원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성경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경고의 말씀이 나온다 (마태복음 7:21).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받는 자는 매우 적다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지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정하셔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때는 알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후 깨닫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있다. 예지론과 예정론을 두고 많은 성경학자의 연구가 있지만, 구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지 반드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핵심은 아니라고 믿는다. 따라서 구원은 선포됨과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이다.

참고문헌

김명일. (2019). Christ's Proclamation to the Spirits in Prison in 1 Peter 3:19. 갱신과 부흥, 23, 7-31.

https://yjm307.tistory.com/8572274?np_nil_b=1 (검색일 2023.05.12.) 복음과 율법. 2019.7.6. "123강,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찰스워스, J. H. (2001). 감옥에 있는 영혼들과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한 다른 연구들. T&T 클라크.

Svigel, M. J. (2012).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감옥에 있는 영들의 정체. 복음주의신학학회지, 55(2), 325-344.

크리스프, 오디(2015). 그리스도의 죽은 자에게 강림하심과 옥중의 영들: 최근 신학의 두 가지 문제. 스코틀랜드 신학 저널, 68(2), 147-163.

Rensberger, D. (1995). 감옥에 있는 영들(벧전 3:19)과 악의 근원. 성서 문학 저널, 114(2), 227-242.

마틴, R.P.(2009). 옥중의 영들: 텍스트와 그 해석. 오순절 신학 저널, 18(2), 263-282.

Michaels, J.R.(1990). 감옥에 있는 영들(베드로전서 3:19): 대중 문화 속의 성경. 성서문학 저널, 109(4), 637-645.

이환진. (2003). [하느님의 반제국주의] 예루살렘 이사야의 스올 신탁과 바빌론 제국의 죽음. 세계의신학, (61), 10-38.

김동수. (2011). 성서, 죽음 너머의 삶. 기독교사상, 31-39.

김균진. (2000). 지옥이란 무엇인가?. 새가정, 21-25.

참고 성경말씀

베드로전서 3:18~20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누가복음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누가복음 16:19-31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히브리서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12:31~32

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빌립보서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뿐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The First Epistle of Peter" by Peter H. Davids (NICNT)

"The Letters of Peter and Jude" by John R. W. Stott (TNTC)

"1 Peter" by Karen H. Jobes (BECNT)

"The Epistles of Peter" by J. Ramsey Michaels (WBC)

"1 Peter" by Wayne Grudem (Tyndale New Testament Commentaries)

누가복음 11:29,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마태복음 12:40,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